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권분운동 피해 지원·지역감염 확산 차단 등 체계적 정리 "유사 감염병 발생때 신속 대처... 시민안전 지키는 지표 활용"

순천시가 코로나19 발생에서 확산,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한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백서 발간은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총체적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 앞으로 유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

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백서는 코로나19가 국내에 발병한 지난 1월부터 코로나 사태 종식 시까지 순천시가 대응해 온 모든 상황을 총 망라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록한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과정 ▲2차 지역감염 확산 차단 ▲순천형 코로나19 피해 지원

▲시민 협력 사례 ▲종합 평가와 교훈 등이다. 특히 순천시만의 선제적이고 돋보였던 코로나19 대응 사례들도 백서에 함께 담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비 25억원을 확보해 취약 계층 생활 안정을 도왔던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과 실시일반 모은 기부금(3억원)으로 어려운 이웃 4500명에게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한 '권분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8000여개 다중이용시설(업소) 사업주에게 전액 시비로 현금 50만원씩 '상생 지원금'을 지급해 호

응을 얻었다. 백서 북쪽에는 코로나 대응 관계자 심층 인터뷰, 코로나19 현장 종사자 후기, 시민 방역단과 자원봉사자 미담 사례 등도 수록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금까지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시 안전하게 시민을 지켜내는 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전국 첫 공모 '순천 낙안면장' 1년5개월만에 사직

전국 최초 개방형 민간인 면장으로 관심이 모았던 신길호 순천시 낙안면장이 중도하차했다. 주민 갈등 확산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신 면장에 대해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0일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순천시는 낙안면장을 재공모하지 않고 내부 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포스코 자회사의 기획실장과 포항 노다지마을 대표를 거친 농업법인 대표였던 신 면장은 2018년 11월 개방형 면장 공개모집에 응모해 낙안면민 100명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선발제도를 통해 2019년 1월 면장으로 임명됐다. 신 면장은 임기 시작 후 1년5개월 동안 낙안면민의 복리 증진과 낙안면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낙안면의 숙원 사업이었던 생활문화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의견 차이가 주민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지리산과 섬진강이 키운 구례 던데들 수박 맛보러 오세요"

사질 토양·큰 일교차로 향·당도 탁월 20~28일 화양마을 '수박·달팽이' 행사

"지리산과 섬진강이 키운 구례 던데들 수박 맛보러 오세요." 구례군 섬진강변 던데들에서 통크고 빛깔 좋은 구례 수박 수확이 한창이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 수박은 섬진강가의 비옥한 사질토양과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재배돼 타 지역의 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나 수박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현재 구례 던데들에서는 43농가가 23ha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친환경 재배농가가 17농가 9.1ha이며 면적과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과일 중 하나로 94%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다. 더운 여름에 느끼기 쉬운 갈증을 해소해 주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구례수박은 5월 중순부터 수확하기 시작해 7월 초순까지 생산된다. 총 생산량은 1132t이다. 올해 4월 이상기온으

로 수박 생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박 농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량을 평년수 준만큼 회복을 했다. 관주, 순천, 여수 공판장에 출하하며 친환경학 교급식과 아이쿱생협에 납품하고 있다. 구례군 문척면 수박농가와 화양마을 주민들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화양마을에서 '수박도 맛보고 달팽이도 구경하자!'라는 주제로 체험행사를 열 계획이다. 수박 서리 체험, 왕달팽이 사육환경 만들기, 화양마을 척결러미 미술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 화양마을 주민들이 섬진강변 던데들 시설하우스에서 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보성 전통차, 우리 손으로 알린다"

주민들이 홍보 콘텐츠 제작

보성 주민들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 전통차 산업 홍보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 이를 위해 보성군은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 전통차 농업을 홍보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은 선조들의 삶이 담긴 지혜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농촌과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성군은 그동안 농업유산이 지닌 가치에 비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만든 홍보콘텐츠를 적극 생산해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주민의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6주간 매주 수요일 보성 북재와 정보화 교육장에서 SNS 마케팅·스피치·영상편집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마련했다. 교육생들은 SNS 이해하기, 저작권·초상권의 이해, 계정·채널 만들기, 샘플 영상 제작 등 기초



보성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 전통차 농업 홍보를 위해 지역 주민이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홍보할 수 있게 다음달 8일까지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한다. <보성군 제공>

적인 교육에서부터 영상 제작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보성군은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이 전통차 농업을 보전하고, 보성 차 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 지역자원인 보성차를 활용한 1인 크리에이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회계·채용 부정 물의' 여수시 노인요양병원

새 운영자 삼호의료재단 선정

여수시는 채용·회계 부정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광주일보 5월20일자 12면)을 운영할 새로운 수탁운영자에 삼호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 노인요양병원 수탁 운영자 공모에는 전남지역에서 의료법인 3곳이 참여했다. 여수시는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삼호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의료법인의 공신력과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고용 승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협상적격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삼호의료재단은 여수시와 노인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한 협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물품 인계순서, 고용승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초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문수청사 매입 무산 시의회 상임위 제동

여수시가 매입하려던 문수청사 매입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 문수청사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됐다. 기획행정위는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3, 기권 2로 부결했다. 문수청사는 토지면적 4691.4㎡에 건물 연면적 3755.6㎡로 매입에는 35억6000만원이 소요된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교육지원청으로부터 무상대부해 사용 중인 문수청사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오면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매입해 문수지구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도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문수청사 내 부서들은 12월에 전남대 국동캠퍼스 협동관으로 이전할 계획이기에 매입 등 활용안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시는 문수청사 매입후 건물을 철거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테크니션스쿨,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여수시의회 상임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의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문수청사에 있는 부서들이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임위의 제동에 따라 문수청사 매입 등 계획은 재검토될 전망이다. 문수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보안을 거쳐 향후 시의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방침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 style="text-align: center;">"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p style="text-align: center;">"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p>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